

# “강원수출 과제는 신흥시장 개척·품목 다변화”

강원경제 발전 전략 진단  
“농산물 수출 활성화 필요”

“강원 수출은 지역경제 규모와 기여도 측면에서 신흥시장 개척 및 품목 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저변 마련을 통한 수출 확대가 중요합니다.”

박신영 한국은행 강원본부 과장은 19일 춘천 스키아카데미웨딩홀에서 ‘소비·수출 점검을 통한 강원 경제 발전전략’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 2019 창립기념세미나에서 이렇게 진단했다.

박신영 과장은 “강원도 수출 현황 및 파급효과”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해 4년 만의 강원수출 20억 달러 회복은 올림픽 이후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지역경제에 활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수출 성장 지속시 부가가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서신구)는 19일 춘천시 동면 스키아카데미웨딩홀에서 소비·수출 점검을 통한 강원경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2019년 창립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김남덕기자

치 및 고용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과장은 또 “수출의 지역 내 파급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

는 강원지역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합금철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 취업 유발효과가 큰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

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한국은행 강원본부 조사역은 ‘강원도 소비의 주요 특징과 여건 점검’이란 주제 발표에서 민간소비의 특징 및 여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유효한 정책방향 수립 및 정책수단 발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조사역은 이를 위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소득기반 확충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비 △의료·유통·교육 분야의 소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종민 강원대학교수의 사회로 배성중 한국은행 강원본부 기획조사부장, 이충인 한림대 교수, 박성민 원주의료기기에테크 노벨리 전략기획실장, 황규선 강원연구원 성장동력연구실장이 종합토론을 벌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서신구 한국은행 강원본부장을 비롯해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허인구 G1강원민방 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백진용기자 bjy@kwnews.co.kr

# 강원경제 성장은 정체, 소비는 확대

한국은행 강원본부 창립기념세미나  
소비성향 90.3% 전국 최고수준  
성장률 2016년 이후 3% 못미쳐

강원지역 민간소비 증가세가 경제 성장률을 웃도는 현상이 최근 몇년간 확대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19일 개최한 2019창립기념세미나 '소비·수출 점검을 통한 강원경제 발전전략'에서 강원지역 평균소비성향이 90.2%로 서울(94.3%), 광주(93.0%)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고, 전국평균(87.8%)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발표에 나선 김성은 한은 강원본부 조사역은 '강원도 소비의 주요 특징 및 여건 점검'에서 강원경제 성장률은 2016년 이후 2년 연속 3%에 못미치는 반면 민간소비 증가세는 2014년 이후 확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서신구)는 19일 춘천 스키이컨벤션에서 정만호 도경제부지사, 육동한 강원연구원장, 오인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세미나를 열었다. 김명준

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 연평균 민간소비는 3.5%로 GRDP 2.8%를 넘어섰으며, 2017년 들어 GRDP 성장률 격차가 0.8%p로 확대됐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역별로 민간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강원은 3.0%로 전

국 네번째로 높다. 전국평균(2.2%)보다 0.8%p 높고, 9개 도단위 평균 2.9%보다 0.1%p 상회했다.

강원민간소비의 GRDP 대비 비중은 52.1%로 전국평균 48.1%를 웃돌았다. 이에 따른 성장기여율도 2014년 5

1.2%에서 2017년 69.1%로 꾸준히 증가했다. 1인당 민간소비 규모는 전국 시·도의 중간수준인 1496만원으로 전국평균 1620만원의 92.3%에 달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자체 중에는 제주(1511만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강원 민간소비 증가(2016년 기준)는 의식주 및 교통관련 품목이 주도했다. 임대료 및 수도광열(15.8%), 식료품 및 음료(13.9%), 교통(13.6%) 등의 순이다. 또 고령화로 인한 의료보건 지출도 5.9%로 2011년대비 1.0%p 증가했다.

김성은 조사역은 "강원지역 민간소비는 2014년 이후 증가폭이 커지며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며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일용근로자 소득기반 강화, 질 좋은 일자리 창출, 고령화 및 1인가구 대응 전략 마련, 역외소비 대응 지역내 인프라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호